

美 우선주의 귀환, 동맹도 압박...폭풍의 시대 오나

스트롱맨엔 친근감... '사적 관계 기반' 변칙적 정상외교 부활 예고 2기 내각 '어른의 축' 대신 충성과...우크라·중동전쟁이 첫 가늠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라며 복귀 신고를 한 지 4년만에 미국 외교의 방향이 '동맹과의 협력 강화'에서 국익 실현을 위해 '동맹도 압박하는 외교'로 180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특히 이번에는 내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격·돌출 행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 대신 '충성파'가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1기 때보다 변화의 폭과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이른바 스트롱맨들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불신감까지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고 중동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왔다는 점에서 '두 개의 전쟁'을 비롯해 국제 정세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관계는 대중(對中) 견제라는 초당적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통상 문제와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 강도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우익승차 불기론으로 동맹 분담 압박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외교의 핵심축인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차나 노선보다는 돈 문제를 우선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해서 최대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이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무임 승차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유럽의 경제 규모가 미국과 같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 "우리가 1500억달러를 (유럽보다) 더 지출했다"면서 "왜 그들은 동등하게 (지원)하지 않느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대해서도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다. (GDP의) 3%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올해 2월에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에 계속 남아 있겠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국가를 의미)이라고 부르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對中) 정책의 한 축인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가져갔다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조를 보여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기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강화해온 한미일,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회),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격자형 소(小)다자 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트롱맨과 변칙적 담판외교 시사... '두 개의 전쟁'이 첫 무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는 국제무대에서 '기피 인사'인 스트롱맨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우선시한 돌출적 정상 외교의 부활 가



6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당선 확신회를 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능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내내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이른바 '악의 축' 국가 지도자들과 자신이 가깝다는 점을 수차 부각하면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말해왔다.

이는 실무 협상에서 정상 외교로 나아가는 전통적인 방식인 상황식(bottom-up)보다 정상간 개인적 관계에 기반 변칙적인 하향식(top-down) 외교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재임 중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만나고 이른바 '김부 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 주석에 대해서도 '좋은 친구'라고 언급했

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과는 퇴임 이후에도 수차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내세워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초강경 통상 정책을 공약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는 두 개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조롱'하면서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특히 지난 9월 말 유세 때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조금(영토를) 포기해야 했다. 최악의 협상도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

서 "우리는 협상을 거부하는 젤렌스키에게 수십억 달러를 계속 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중전 협상을 압박하고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임 중에 친(親)이스라엘 중동 정책을 구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서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다.

그는 다만 전쟁 자체는 빨리 '해지워야 한다'(get it over with)는 입장이다. 가지지구 내 최악의 인도적 상황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이스라엘이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앤디 김, 한국계 첫 美 연방상원의원 당선

뉴저지주서 이변없이 당선...동부지역 아시아계 최초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42·사진) 연방 하원의원이 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했다 A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미 동부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젊은 나이에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6월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줄곧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의원의 상원 진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일찍부터 나



/연합뉴스

왔다.

그는 지난해 9월 뉴저지 출신인 현역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의 원이 뇌졸중수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다음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격적으로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민 2세인 김 의원은 부친 김정환 씨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대를 거친 유전공학자로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친 입지전적 인물이다. /연합뉴스

美 공화당, 4년만에 연방 상원 다수당 탈환

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주서 2석 추가 최소 51석 확보

미국 공화당이 5일(현지시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의회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자리를 4년만에 탈환했다.

공화당은 이날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원 선거가 진행된 곳 중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주 등에서 승리하며 전체 100석 가운데 최소 51석을 확보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2년 전 중간선거 이후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친(親)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과 함께 51 대 49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뀌게 됐다.

공화당은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와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추가로 2개 의석을 보냈다.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은 아직 양당 중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